

< 가정추모예배 해설 및 예배순서 >

지침

고인을 기념하여 애도하고 추모하는 예배를 추모예배라고 한다. 추모예배에는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를 회상하는 가운데 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유족에게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유족과 친족 및 친지들 간에 화목과 우의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추모예배를 드림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고인이 별세한 날 하는 것이 좋고, 시간과 장소는 가족의 합의하에 하는 것이 좋다. 추모일이 주일과 겹치면 전날이나 다음날 하는 것이 좋다.
- 2) 대상 범위는 직계에 한하는 것이 좋다.
- 3) 추모예배 및 예식은 고인의 자녀 생존 시까지 함이 좋다.
- 4) 고인의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지들에게 추모예배가 있음을 알릴 수도 있다.
- 5) 고인의 사진과 신앙적 유품(성경, 찬송)과 약력을 준비하고, 생전에 녹음해 놓은 육성이나 녹화해 둔 것이 있으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
- 6) 식전을 꾸며 놓을 경우, 상 위에 사진을 놓고 꽃으로 장식할 수 있다.
- 7) 음식을 준비하되 진상(상차림)해서는 안되며, 추모예배 또는 예식 후에 나누도록 함이 좋다.

추모예배 순서

예 배 사 -----디모데후서 1:3-4----- 집 례 자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부터 고 000씨(성도, 직분명)의 추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 송 -----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606장, 구 291장) ----- 다 갈 이

1.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2.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3.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롭이 끝나고 이별이 눈물이 없겠네
 4.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 후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X2) 아멘

기 도 ----- 말 은 이

기도1)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 000씨의 과거를 추모하면서 가족들과 친지와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살아 있을 때 행한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을 자손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들의 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의 영광도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인의 모범적인 신앙의 본을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2)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만물을 생명과 죽음으로 섭리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보살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 000씨(성도, 직분명)의 추모예식에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0년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신 고인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히브리서 11:1-12 ----- 말 은 이
권면과 위로 ----- 말 은 이

인생은 한 생애를 통해 발자취를 남기고 갑니다.

첫째, 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순종한 아담, 하와, 가인, 가룟유다 등은 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갔습니다.

둘째, 무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자들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도, 목표도, 성취함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무의미한 생을 살고 갔습니다.

셋째,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나는 아브라함과 모세는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인류 구원의 성업을 남긴 발자취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를 일깨워 준다. 우리 일생 송고하게 할 수 있을, 그리하여 떠나면서 우리는 뒤에, 시산에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긴다.” (롱펠러의 「인생찬가」에서).

찬 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492장, 구 544장) ----- 다 같 이

1.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2.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곤한 나의 몸 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오리
 4.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을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 후렴: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 눔 ----- 말 은 이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나 성경구절, 또는 고인의 신앙을 기리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나눈다.)

축도/주기도문 ----- 목사/다같이